현내면 초도항 남쪽통문 상시 개방

지난 10일 4개 기관 · 단체 합의서 서명 … 이명철 현내면번영회장 권익위에 건의해 성사

군사통제구역으로 수십 년간 불편을 초래했던 현내면 초도항 통문 2개소 중 남쪽통문이 제한적 개방에서 상시 개방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업인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도항은 항구로 진입하는 통문 2개가 수십년간 군부대에 의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통제됨에 따라 어업인은 물론 어촌계 활어회센터 상인들이 조업활동과 영업에 불편을 겪어왔다.

현내면번영회와 육군22사단, 국민권익위원회, 현내면사무소 등 4개 기관 · 단체는 지난 13일 오후 2시 현내면사무소에서 어업인 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쪽통문을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초도항 통문 상시개방 합의서'에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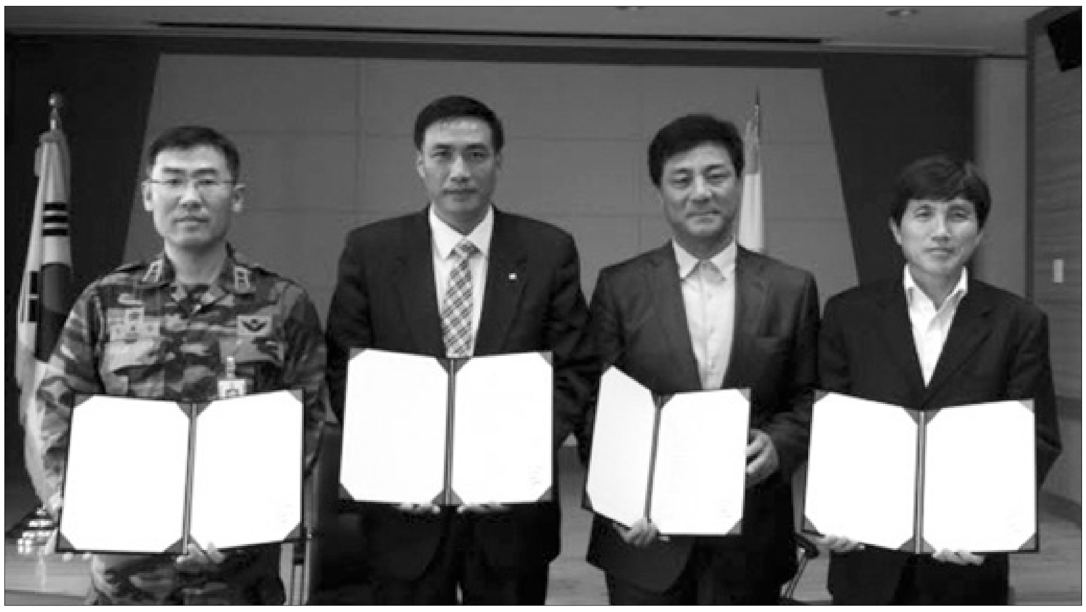
합의서 내용에는 현내면이 초도항의 통문 2개소 중 남통문 1개소에 CCTV 1대와 인근 최기초소에 모니터 1대를 설치하고, 항포구내 설치된 경계등을 야간 시간대에 상시 점등하기로 했다.

또 장비 설치와 정비 등 운영 유지 비용은 현내면에서 부담하고, 관리 · 운영은 군부대가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부대에서 대간첩작전 등 부득이하게 군 작전상 필요한 일정기간 또는 시간에는 통문개방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남통문 상시 개방 소식을 접한 초도리 어민들은 "파도가 심할 때면 배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 정박돼 있는 배를 확인하려 해도 들어가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불편이 해소돼 마음이 후련하다"고 했다.

초도항 어촌계활어회센터 상인들은 "여름철 같은 경우 피서객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지 못해 장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마음 편히 영업을 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합의가 있기까지는 이명철 현내면 번영회장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내면번영회와 육군22사단, 국민권익위원회, 현내면사무소 등 4개 기관 · 단체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2시 현내면사무소에서 '초도항 통문 상시개방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명철 회장은 통문 상시 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지난 9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고성군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신문고를 찾아가 이런 사정을 건의했다.

그 후 지난달 13일 권익위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신청인인 현내면번영회와 피신청인인 군부대와 합의 권고를 했고, 양측이 받아들여 지난 10일 현내면사무소에서 극적으로 합의서 서명이 이뤄졌다.

원광연 기자

고성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12월말까지 관공서 · 유관기관 등 비치 … 새주소 건축업무도 만전

고성군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것에 대비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내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책자형 100부, 접이식 1,500부 등이며, 7일부터 작업에 들어가 12월 말까지는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내지도에는 행정구역 경계와 명칭, 지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비롯해 관내 주요건물과 공공시설물의 명칭 등이 담긴다.

군은 제작된 안내지도를 관공서 및 유관기관에 비치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들여 일반 주민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때 도로명주소로 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새주소 시행에 따른 건축업무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납부 방법

1. 통장 자동이체
2. 지로 납부
3. 직접 납부(통장, 사무실)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 681-1667